

The Key Ⅷ.

단단히 마음먹는 '의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6:15-16]

15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 날만은 일곱 번을 돌았다.

16 일곱 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1.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

(1) 스스로의 권리 - 자유

'의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지'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붙는다. '자유의지'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바른 정의를 말한다. 하나님의 권위안에 있지만 그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움직이고, 계획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가 입력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움직임은 다른 피조물의 움직임과 다르며, 기계가 작동하여 움직이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인간의 '움직임', '행위'하는 것 자체가 다른 피조물이 움직이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유'란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생각한대로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인간의 자유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스스로'라는 단어이다. 인간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으로 지음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셨다는 것이다. 존중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가치있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란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를 말한다. 가치있는 존재이다.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이 땅에 유익을 주는 온전한 존재인 것이다. 이 땅을 복되게 만드는 복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 땅을 온전하고 복 있게 하라는 것이다. 즉, 인간이 그와 같은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복된 존재라는 것이다.

(2) 스스로의 권리 - 의지

의지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향해 생각과 마음이 모아진 상태를 말한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의 상태이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향하여 굳건하게 마음을 먹는 상태이다. 어떤 일이든 마음을 먹는 일이 중요하다.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면 없던 힘도 생겨나고, 어렵게만 보였던 일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의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하여 마음을 먹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움직이려고 하는가? 무엇을 향하여 내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일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란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인간의 의지가 '의미있는 일'을 향하는 것이다. 의미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하다. 이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기를 원했다. 그런데 인간이 첫 실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향해 마음과 생각을 모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향해 '의지'를 사용한 것이다. 인간이 마음을 먹는 의지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의지'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향해 마음을 먹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잘 연단되어야 한다. 바로 그 상태가 성숙함이다.

(3)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잘 훈련된 상태 - 성숙함

성숙함은 무엇인가?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스스로 모아진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자유의지' 안에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은 주변 '환경'에 덜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미숙한 사람의 특징을 보라. 심지가 약하고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상한 일에도 쉽게 마음을 먹는 것이다.

(4) 의지가 훈련되어지는 곳

'의지'는 언제나 '환경의 어려움' 안에서 연단을 받는다. 의지가 가동되는 곳은 모든 것이 좋고 평안할 때가 아니다. 의지라는 동력이 가동되는 곳은 마음을 먹어야 움직일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자신의 한계 상황이 느껴질 때이다. 한 마디로 정의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이다.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필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을 단단히 먹는 '의지'이다.

(5) '의지'에 대한 오해

종종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의지'에 대해 오해를 할 때가 있다. '의지'가 마치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힘과 신념이라고 오해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의 권리, 즉 '자유의지'를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자유의지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은혜'는 물론 우리의 상태와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총을 말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의 핵심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인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아무 계획없이, 노력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한 번 받은 은혜로 인해, 죄를 지어도 전혀 가책없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죄로부터 오는 수치심, 정죄감, 자책감, 죄책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당연히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의지를 가동해서 복음을 붙잡고 다시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모습이다. 아무것도 하지않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의지를 발현하여 싸워내는 존재가 성도의 진짜 정의이다.

죄에 대하여도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인간 스스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말고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죄에 지배당하지 않지만 영향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성도는 한 번 구원 받아도 '의지와 노력'으로 죄의 영향력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의 영향력과 싸워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진짜 모습인 것이다.

2. 여리고의 몰락은 6번 도는 것이 아니라, 7번 돌아야 무너지는 것이다.

(1) 여리고의 몰락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 6:1-5]

- 1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 2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 3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옛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 4 제사장 일곱 명을, 숫양 뿔 나팔 일곱 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일곱 번 돌아라.
- 5 제사장들이 숫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합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때에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반드시 넘고 정복해야 할 성이었다. 피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다. 반드시 넘어야 하는 여리고의 상황은 1절에 보면 '굳게 닫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문헌에 따르면 여리고는 '성'이라고 보는 것보다 '요새'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갈 때 우리 앞에 여리고 요새처럼 굳게 닫혀있는 상황들을 맞이 할 때가 있다. 그런 상황속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둘 중에 하나이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뚫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포기가 아니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곳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명령하셨는가?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이레째 되는 날은 성을 일곱 번 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4절). 그렇게 하면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 여리고 함락과 '의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의지가 필요한지 여리고 사건을 보면 잘 나와있다. 여리고 몰락은 '6번 돌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만 장군의 기적처럼 요단강에 6번 들어가면 문동병이 없어지지 않는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부흥의 비구름은 사환이 6번 가면 작은 구름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 6번 돌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약속대로 끝까지 7번 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마지막 날은 일곱바퀴를 도는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하셨다.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노아에게 방주를 통해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미 그 약속은 우리안에 있다. 그렇다면 누가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 누가 그 뜻을 이 땅에 실제화 시키겠는가?

그 사람은 바로 7번을 도는 사람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부를 거는 온전한 '믿음'을 말한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믿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다. 마지막 불가능한 순간에 7번 여리고를 돌게하는 것이 바로 '의지'라는 열쇠이다. 마지막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사용해야 하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의지'임을 기억하라.

6번째에서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의지란 다시 한 번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7번을 돌 수 있다. 의지를 사용하라. 나약해지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정렬시키는 일에 사용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할 것이다.

(3)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지란?

작은 누에가 고치를 벗어버린 것에서 그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누에는 고치를 어떤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사용함으로 벗어난다. 그 의지가 누에에게 가장 아름다운 날개를 선물한다. 나비의 날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스스로 고치를 벗어나 아름다운 날개를 달기 원하는 마음, 내 자녀가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아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키위해 마지막 생명의 힘 하나까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자원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가 된다.

첫째 아담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사용했다. 육은 내 모든 의지를 육신의 일에 쓰는 미숙함을 말하지만, 영은 내 모든 의지를 영적인 것에 사용하는 성숙함을 말한다. 의지가 아름다운 이유는, 모든 것이 모여지고 액기스를 만드는 것과 같은 짜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중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다.

'숭고한 의지'는 하늘의 문을 열며,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만들 수 있으며, 스테반 처럼 죽어가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의지'를 사용하라. 끝까지 '일곱 바퀴' 를 돌아야 한다. 바로 그 때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진다. 아멘.